

자승 스님 당선소감

사회와 세계속에 한국불교 도약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이하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종단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소납은 다시 한번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납의 당선은 청정한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입니다.

토적성산(土積成山)이라고 했습니다. 한 줌의 흙이 쌓여 태산을 이루듯이 소납은 이번 선거 기간에 모인 종도들의 해안과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항상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타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길은 결코 소납 혼자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종도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랑의 바다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도반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행풍토 진작과 종단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이제 과거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와 국민 앞에 더욱 다가서고자 합니다.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정신문화를 향도하고, 우리 사회에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무緣자비(無緣慈悲)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소납은 종단 행정을 책임지는 소임자로서, 종도의 일원으로서 승가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부대중이 진정 종단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려한 소납을 위해 어려운 과정을 함께해온 선거 대책위원회 교문스님 및 위원장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을 함께해 온 보선 스님 이하 모든 후보스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원융화합의 큰 강물로 다시 만나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소통' 리더십 강점... 사회통합 노력 남달라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 스님은 개혁 종단 출범 이후 첫 총무원장 연임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만큼 자승 스님이 보여준 리더십과 종무행정의 방향에 종단 여론 주도층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반증한다.

자승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봉암사 선원 등에서 수선 안거를 하고, 수원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하며 수행과 가람 수호, 포교의 원력을 몸소 실천했다.

자승 스님은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종단 종무 행정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후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며 종무행정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입법기구인 중앙총회에서 활동도 두드러졌다. 자승 스님은 제10대, 12대, 13대, 14대 중앙총회의 원으로서 종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중앙총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아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종회 본연의 기능인 종법 입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 종단 각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등을 원만히 회향했다.

자승 스님을 평가함에 있어서 포교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서 불교학자, 불교단체,

입법·행정 수장 두루 역임
현안 해결하며 종무 안정화

은정재단 이사장 활동하며
첫 청소년교리대회 개최 등
종단 포교 역사에 한 획도

33대 집행부 최고 성과인
대사회 사업 등 진두 지휘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 3대 축제로 평가받는 나란다 축제



를 개최해 전국의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오롯이 이어갈 수 있도록 불교교리경시대회를 열어 교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처음 시작 당시 한국불교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로 청소년 포교에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평가받았다. 총무원장으로서 제33대 집행부를 이끌면서도 적지 않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2년 간 종단의 위기상황 타개와 청정한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자

성과 쇄신 결사 운동'을 펼쳐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했다. 무엇보다 자승 스님의 재직 시절동안 교무원과 함께 시행한 승가교육 체계 개편은 시대의 불사로 평가된다.

종단의 수행 종풍 선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제도를 시행과, 한국 불교 근현대 역사상 최대불사로 평가받는 '조계사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조계종 종본산의 성역화 사업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자승 스님은 이웃 종교와의 교류·협력과 사회통합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대표의장으로서 도덕성 상실 및 계층·세대·종교 간의 갈등, 생명경시풍조, 물질 만능 사상에 대하여 종교계가 공동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또한,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대 강?용산참사?한진중공업?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한 부분은 '불교의 사회화'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백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비방·폭로 일룩진 선거, 투명해질 수 없을까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총평

흔히 세간의 선거 관련 보도 기사를 접하다 보면 '복마전(伏魔殿)'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복마전의 출전은 <수호지>에 나온다. 북송(北宋) 인종 때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러 신주(信州)의 용호산에 은거하고 있는 장진인(張真人)에게 홍신(洪信)을 보냈는데,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장진인이 외출한 사이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보았고, 호기심이 발동한 홍신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문을 열고 비석을 들추게 되었다. 그러자 안에 갇혀 있던 마왕 108명이 뛰쳐나왔다.

이후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회면 선거 기사에는 '복마전'이라는 용어가 끊임없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역시 사회의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유력후보인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 5일 남겨두고 상호 비방과 폭로를 이어갔다. '정법통신'이라는 대포폰 과문자는 스님뿐만 아니라 교계 기자들에게도 전송됐다. 서로의 승적 문제를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가며, 두 진영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갔다.

이유는 선거를 양 진영은 선거일을 하루 남겨 놓고 나서야 "선거인단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는 차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심사를 놓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중앙선거관리위는 10월 7일 열린 제281차 회의에서 마곡사 선거인단의 자격을 박탈했다. 마곡사 관련 안건 논

후보들 상호 비방전 '눈살'
선거인단 구성 놓고 다툼
"선거제 변화 필요해" 대두

의에서는 두 진영 소속 선관위원 간 대립이 최고조로 달했다. 마곡사 안건 결정에 있어서 비밀투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원오 스님을 비롯한 3명의 선관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퇴장했다.

결국 선관위원 5명이 참석한 채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1표, 반대 4표로 마곡사 선거인단 자격 부여 문제는 부결됐다.

후보 자격 심사 이후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 토론



10월 5일 동화사와 마곡사 대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단 심사에 앞서 정략적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회는 논의만 있었을 뿐 열리지 못했다. 후보들이 앞 다퉈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서로 간의 정책을 상호 검증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10월 7일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양 진영 대변인 좌담회가 열렸을 뿐이다. 후보자들이 각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조계종의 정책 선거는 이번에도 요원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자승 스님 역시 10월 10일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단 지도자를 뽑는

방식에서 추대가 가장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보다는 불교 전통의 방식인 대중공의에 입각한 추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추대가 안된다 차안으로 선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 321명 선거인단의 규모는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직선제에 준하는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선거는 끝이 났고, 승자와 패자는 갈렸다. 이제는 '화합'만이 남았다. 선거를 통해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고 화합승가를 만드는 일은 피아를 나눌 일이 아니다. 신종일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조 계 사

대 중 일 등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02)768-8600
팩스 : 02)720-2299 http://www.jogyesa.kr